

〈會社 전경〉

永進藥品工業(株)는 지난 1953년에 창립된 永進物産(株)를 母體로 하여 1962년에 「生命을 爲한 醫藥」이라는 기업이념을 목표로 재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人間的 生命을 다루는 고도의 두뇌집약산업인 醫藥品 生産分野에서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現代醫藥의 주종인 항생제와 영양수액제, 소화기관용 의약품 등 약 200여종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永進藥品은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수한 人材育成과 技術開發뿐이라는 創業者 金生基 會長의 확고한 意志에 따라, 지난 1975년에 이미 中央開發研究所의 설립과 함께 특허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特許管理를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1980年度에는 特許管理우수업체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1983년에는 발명품토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銀塔 産業勳章」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永進藥品의 特許管理실태를 알아본다.

〈永進藥品工業(株) 特許課 崔世夏主任 記〉

特許管理의 歷史

永進藥品은 국내에서 使用되고 있는 의약품 원료의 대부분

을 海外輸入에 의존하고 있던 60年代 初, 기초원료 합성에 대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때부터 자체적인

全社的인

世界속의

연구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1968년에는 국내 최초로 半合成페니실린의 合成에 성공하였고, 1970年代 후반에는 민간기업체로서 세계 3번째로 Talampicillin의 合成에 성공한데 이어, Ticacicillin, Bacampicillin, Cepalexin의 합성에도 차례로 성공함으로써 이들 자체개발기술에 대한 保護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개발부에서 특허관리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특허전담부서의 설치

경기도 오산에 중앙개발연구소가 설립되었던 1975年,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처음으로 本社 개발부 내에 特許課를 설치하여 각종 工業所有權 관련업무를 전담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9년에는 특허전담요원이 辦理工士試驗에 합격하여 그후 약10年동안 국내제약업계

特許管理

永進文化 추구



〈金鎮浩 사장〉

에서는 유일하게 변리사가 직접 특허업무를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특허관리체계를 확립하여왔다.

◆83年, 銀塔産業勳章수상

1980년에는 Talampicillin의 합성공정을 개발한 공로로 特許廳에서 주최하는 발명장려대회에서 최우수금상을 수상한 바 있고, 1983年 5月19日, 제18회 발명의 날에는 발명풍토를 조성하여 國家産業發展에 기여한 공로로 銀塔産業勳章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全社的 特許管理體制운영

최근까지는 特許課가 中央開發研究所 內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특허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全社的으로 재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인 管理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特許課가 本社 개발부에 소속되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특허과를 개발부부장(鄭啓鍾 專務理事) 직속기관으로 둠으로써

會社의 전략적 차원에서 특허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허전담부서 이외에도 회사내 研究開發부서의 각조직마다 특허관리요원을 1명씩 선정하여 各種특허정보를 신속히 교환함으로써 정보의 共同化를 도모하고 있다.

특허전담부서의 活動

◆出願 및 登錄現況

1989年 10月末 현재, 권리기간이 소멸되지 않은 特許權이 外國特許 3件을 포함해서 모두 13건, 出願中이거나 심사중인 特許가 外國出願特許 3件을 포함해서 모두 14건이다. 현재 출원중인 特許중에는 미생물 特許 4件을 포함해서 모두 5건의 物質特許가 出願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1건의 미생물특허는 國內물질특허 제1호로 출원된 것이다.

한편, 商標는 등록상표 232件과 출원상표 68건을 확보해 두고 있어서, 현재 상품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상표는 등록상표이거나 출원중인 상표, 또는 사용권설정에 의해 사용하는 상표들이다. 意匠등록은 모두 23건을 확보해두고 있다.

◆特許教育 및 海外研修

우선, 社內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는 R&D요원들의 자질향상과 특허관리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기 위하여 매년 2회이상 外部강사를 초빙하여 工業所有權에 대한 社內교육을 실시(금년에는 韓國發明特許協會가 주관하는 企業特許管理巡廻 啓導事業의 일부로 실시)하는 한편, 社內 特許전담요원을 주축으로 하여 特許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社外의 각종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특허관리 전문

교육에도 그 수준에 따라 특허 전담요원 및 R&D요원을 수감토록 하고 있으며, 공업소유권 관련 해외연수과정에도 적극 참가토록 함으로써 해외 선진국의 공업소유권제도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정보 수집활동

국내특허자료로는 주로 특허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特許公報 및 公開特許公報를 정기구독하면서 국내의 경쟁회사의 제품개발정보를 수집하고, 그중에서 自社와 관련된 관심품목 약20여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축적해 오고있다.

그리고, 새로운 개발품목이 선정되면 특허청의 소장자료 및 産業研究院의 KIET LINE이나 海外 데이터뱅크를 이용하여 폭넓은 선행기술을 조사한 후에 독자적인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고있다.

◆特許紛爭예방

最近, 빈발하고 있는 工業所有權 紛爭에 대비하여 新개발품목이 선정되면 선행기술을 철저히 조사하여 독창적인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전에 特許紛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신제품에 사용할 商標는 가능하면 이미 權利가 설정되어 있는 저장상표중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새로운 상품명에 결정될 경우에는 선등록 상표와의 저촉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함으로써 상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

고 있다.

한편, 自社가 確保해둔 權利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을때는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중지를 경고하고, 그래도 침해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특허청의 權利範圍 確認審判이나, 法院의 가치분 및 침해중지소송 등을 제기하여 權利保護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職務發明補償制度

永進藥品은 자체적으로 제정한 직무발명보사규정에 따라 職務發明補償制度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직무발명보상은 출원시 지급하는 출원보상금과 등록시 지급하는 등록보상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出願補償金

출원보상금은 종업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아무리 작은 發明이라도 이를 出願으로 연결하여 權利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써, 그 발명의 실시 및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출원하기로 결정된 모든 發明 또는 考案에 대하여 지급하는 補償金이다.

各 權利別 출원보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特許 : 100,000원

나. 實用新案 : 50,000원

다. 意匠 : 30,000원

◆登録補償金

등록보상금은 등록이 확정된 권리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발명의 독창성여

부, 연구노력의 정도, 회사에 기여도, 지속성 등에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각권리별 등록보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特許 A급:100만~

50만원

B급:50만~300만원

C급:10만~200만원

나. 實用新案 A급:50만원~

100만원

B급:10만~

50만원

C급:5만~

10만원

다. 意匠 A급:10만~50만원

B급:5만~10만원

C급:3만~5만원

◆등록보상금 채점기준

등록보상금지급에 대한 심사는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는데, 이때 심사기준은 7가지항목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점수로 채점하여 총점수가 90점이상이면 A급, 75점 내지 90점이면 B급, 75점미만이면 C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사항목 및 배당점수는 다음과 같다.

①독창성여부(15점)

②개발동기(15점)

③실시여부(15점)

④출원목적(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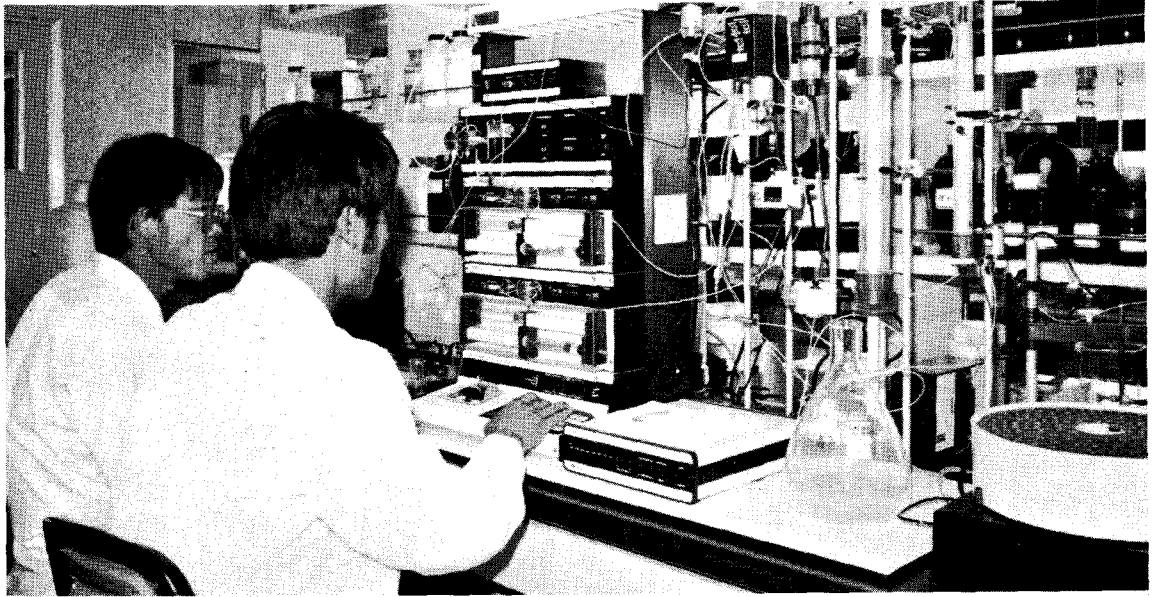
⑤제품화전망(15점)

⑥연구노력정도(15점)

⑦기술적 적용범위(15점)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는 직무



〈研究所 研究室〉

발명보상금의 지급을 심의하고, 그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사기 및 발명의식을 앙양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개발본부장(특허관리부서의 담당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간사(특허전담요원) 1명과 위원장이 선임하는 심의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시 위원장의 결정하에 간사가 소집한다.

**特許의 産室
中央開發研究所**

永進藥品의 特許 産室인 中央開發研究所(所長: 金鎮浩 社長)에는 현재, 학사이상의 순수한 연구인력만 4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은 博士 2名, 碩士 17名, 學士 11名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중앙 개발연구소 本所에는 有機合成 研究部, 新藥開發研究部, 그리고 生物工學研究部の 3개 연구 部門과 이들을 지원해주는 分析室, 그리고 제반 연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관리과로 편성되어 있고, 서울 성수 製劑工場내에 있는 서울 分所에는 製劑研究部, 生藥研究部, 藥理毒性研究部の 3개 연구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개발연구소 서울分所는 현재 경기도 남양에 건설 중인 GMP工場으로 이전중에 있다.

永進藥品은 1989년도 연구소 운영지침을

첫째, 연구소의 국제화로 기술도입 및 수출촉진.

둘째, 인재개발 및 育成정책으로서 職務發明補償制度를 활성화하여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만족감 및 성취감 증진.

셋째, 연구관리의 다양화로 정보검색방법의 確立을 결정하고, 보다 새로운 기술개발과 이에대한 合理的인 특허관리만이 2000년대 영진의 未來를 약속해 준다는 신념아래, 世界속의 永進文化를 추구하고 있다.<♣>

신간안내

발명특허교실 가이드

發明入門

- ▲ 한국발명특허협회발간
- ▲ 국판: 234면
- ▲ 가격: 3,500 원
- ▲ 문의처: 551-5571~2